2023년 2/4분기 수원지역 기업경기전망조사

2023. 4



■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수원] 요약

구 분	수 원			
十 七	4/4실적	1/4전망	1/4실적	2/4전망
체감경기	71	70	64	90
매 출 액	74	71	73	96
영 업 이 익	59	71	66	90
설비투자	72	83	71	92
공급망 안정성	55	78	69	96
시업장공장기동	76	81	73	97

- 수원지역 10인 이상 제조업체 82개 사를 대상으로 '2023년 2/4분기 경기 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분기(70)보다 20포 인트 상승한 90으로 집계되었다.
-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의 세부 항목을 보면 '매출액'96, '영 업이익'90, '설비투자'92, '공급망

안정성'96, '사업장 공장 가동'97로 모든 항목이 기준치 '100' 이하로 조사되었다. 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 기업들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올해 2분기 경기가 직전 분기와 비교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5.6%,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39.0%,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25.4%로 조사되었다.
- 올해 매출액 목표치와 작년 매출액 목표치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에 32.3%가 '소폭 하향(10% 이내)'으로 답변하였으며, '소폭 상향(23.7%)', '지난해 수준 (22.0%)', '크게 상향(11.9%)', '크게 하향(10.2%)' 순으로 집계되었다.
- 영업이익 목표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5.6%가 '소폭 하향(10% 이내)'으로 답변하였으며, '소폭 상향(23.7%)', '지난해 수준(18.6%)', '크게 하향(11.9%)', '크게 상향(10.2%' 순으로 집계되었다.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및 활용방법

○ 수원지역 기업체의 2023년 1/4분기 경영 실적 및 2023년 2/4분기 경기 전망에 대한 체감 정도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수원지역 제조업 동향 및 전망치에 대한 기초통계자료로 활용코자 함.

2. 조사기간

- 기초자료조사 : 2023. 2. 21 ~ 3. 7
- 자료정리 및 통계분석 : 2023. 3. 8 ~ 4. 7
- 보고서 작성 : 2023. 4. 10 ~ 4. 14

3. 조사대상

○ 수원지역 소재 10인 이상 제조업체 82개 업체 응답

4. 조사방법

○ FAX 및 이메일 조사

조사 결과

1. 전반적 경기동향

[2023년 1/4분기 경영실적 하락세]

2023년 1/4 분기 기업의 경영실적은 '64'로 직전분기('71')보다 7포인트 하락하며 하락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이다.

[2023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 '90', '부정적']

수원지역 82개 10인 이상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2/4분기 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 경기 전망(BSI) 지수가 '90'으로 집계됐다. 3분기연속 하락세에서 1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으나 여전히 기준치(100)보다 낮아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기전망지수(BSI)는 100 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이고, 100 이하면 그 반대다.

<최근 3년간 수원지역 BSI(전망치) 추이>

[매출액 목표치 : 하향]

올해 매출액 목표와 지난해 매출액 목표치를 비교하는 질문에 목표치를 '낮게'설정한 기업은 42.4%(크게 하향(10.2%), 소폭 하향(32.2%))를 차지하였으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기업은 35.6%(소폭 상향(23.7%), 크게 상향(11.9%))로 매출실적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기업이 많았다. 매출액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22.0%로 나타났다.

[영업이익 목표치 : 하향]

지난해 대비 2023년 영업이익 목표치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낮게'설정한 기업은 45.8%(소폭 하향(35.6%), 크게 하향(10.2%))를 차지하였으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기업은 33.9%(소폭 상향(23.7%), 크게 상향(10.2%))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기업이 많았으며, 영업이익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18.6%로 조사되었다.

[상반기 리스크 : 원자재가격 상승]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원자재가격 상승'이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물가·금리인상'(21.6%),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2%),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4.4%), '원부자재 수급불안'(13.6%) 등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리오프닝(한국경제):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

중국 리오프닝 이후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4.4%가 '부작용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다. 다음으로 '영향 없음'(22.2%), '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큼'(19%) 등으로 조사되었다.

[중국 리오프닝(수원기업): 영향없음]

반면 중국 리오프닝이 귀사의 경영실적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45.8%가 '영향 없음'으로 응답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영실적에 영향이 없다고 예상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42.2%)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대중국 사업 계획 : 현재 수준 유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사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수준 유지'(58.6%)가 가장 많았다.

[중국 리오프닝 과제 : 한·중 관계 개선, 미·중 갈등과 같은 불확실성 해소]

중국 리오프닝을 우리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 관계 개선'(35.4%)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항목별 BSI(전망치) 동향>

구늯	쿤	2022년 2분기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비고
케기다게기	전망	98	82	82	70	90	
체감경기	실적	97	72	71	64		
매 출 액	전망	103	112	94	71	96	
배 풀 백	실적	109	78	74	73		
영업이익	전망	98	97	75	71	90	
विभागन	실적	86	72	59	66		
설비투자	전망	94	108	94	83	92	
열미구사	실적	89	82	72	71		
공급망	전망	77	98	85	78	96	
안정성	실적	82	74	52	69		
사업장	전망	99	96	80	81	97	
공장 가동	실적	85	82	76	73		

2. 세부 항목별 경기전망

가. 체감경기부문 실적/전망

- 2023년 1/4분기 체감 경기 부문에 대한 실적은 '64'로 22년 4/4분기 '71'보다 7포인트 하락하였다. 2023년 1분기 체감 경기가 "악화"라고 답한 기업은 50.8%로 집계됐으며, 체감 경기가 "불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3.9%, "호전"된 것으로 본 기업은 15.3%로 나타났다.
- 2023년 2/4분기 체감 경기 전망은 '90'로 2023년 1/4분기 '70'보다 20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나타났다. 3분기 연속 하락세에서 1년 전 수준으로 복귀했으나 대부분 기업들이 2023년 2분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분기 경기전망이 '불변'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9.0%로 집계됐으며, 경기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5.6%,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25.4%로 나타났다.

<체감경기 부문 전망>

체감경기	호 전	불 변	악 화	BSI지수
실 적 (1/4분기)	15.3%	33.9%	50.8%	64
전 망 (2/4분기)	25.4%	39.0%	35.6%	90

나. 매출부문 실적/전망

- 2023년 1/4분기 매출부문에 대한 실적은 '73'으로 조사되었다. 직전 분기 실적인 '74'와 비슷한 수준이며, 여전히 기준치 '100'이하로 매출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 2/4분기 매출액 전망치는 '96' 으로 조사되어 전분기 전망치인 '71' 보다 25포인트 높게 집계되었지만 2023년 2분기 매출 전망이 어두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출액 부문 전망>

매출액	증 가	불 변	감 소	BSI지수
실 적 (1/4분기)	25.4%	22.0%	52.5%	73
전 망 (2/4분기)	31.3%	32.8%	35.8%	96

다. 영업이익 실적/전망

- 2023년 1/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은 '66'로 조사되었다. 직전 분기 실적('59')에 비하여 7포인트 높게 조사되었지만 영업이익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2/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90'으로 조사되어 직전 분기 기대치 '71' 보다 19포인트 높게 조사되었지만 2023년 2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어두운 것으로 예상하는 많았다.

<영업이익 부문 전망>

	영업이익	증 가	불 변	감 소	BSI지수
실	적 (1/4분기)	25.4%	15.3%	59.3%	66
전	망 (2/4분기)	30.5%	28.8%	40.7%	90

라. 설비투자 실적/전망

- 2023년 1/4분기 설비투자 실적은 '71'로 전분기 실적('72')보다 1포인트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기준치 '100'보다 낮은 수치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2/4분기 설비투자 전망치는 '92' 로 조사되어 전분기 전망치인 '83' 보다 9포인트 감소하여 기업들의 2분기 설비투자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부문 전망>

	설비투자	증 가	불 변	감 소	BSI지수
실	적 (4/4분기)	12.1%	48.3%	39.7%	72
전	망 (1/4분기)	19.0%	44.8%	36.2%	83

마. 공급망 안정성 실적/전망

- 2023년 1/4분기 실적은 '69' 로 직전분기 ('71')보다 2포인트 낮은 수치로 조사되어 기업들의 공급망이 아직 불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3년 2/4분기 전망은 '96'으로 조사되어 직전분기('78')보다 18포인트 상승하였지만 2023년 2분기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성 기대치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공급망 안정성 전망>

공	'급망 안정성	호 전	불 변	악 화	BSI지수
실	적 (1/4분기)	8.5%	52.5%	39.0%	69
전	망 (2/4분기)	23.9%	47.8%	28.4%	96

바. 사업장·공장 가동 실적/전망

- 2023년 1/4분기 사업장·공장 가동 실적은 '73'으로 전분기 실적('76')보다 낮은 수치로 집계되어 지난 1분기 기업들의 사업장·공장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 2023년 2/4분기 사업장·공장 가동 전망은 '97'로 전분기 실적('81')보다 16포인트 상승하였지만 '100'보다 낮은 수치로 2분기 기업들의 사업장·공장 가동 전망치가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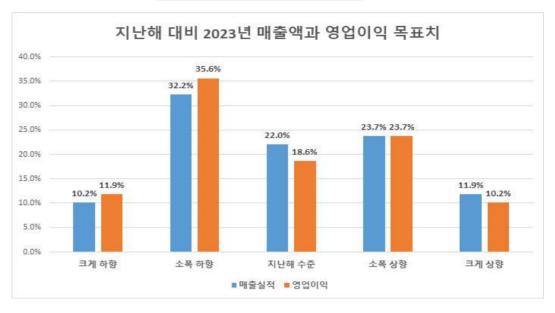
<사업장·공장 가동 전망>

공	급망 안정성	호 전	불 변	악 화	BSI지수
실	적 (1/4분기)	15.3%	42.4%	42.4%	73
전	망 (2/4분기)	24.3%	48.6%	27.1%	97

사. 지난해 대비 매출액/영업이익 목표

- 올해 매출액 목표와 지난해 매출액 목표치를 비교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해 대비 목표치를 '낮게'설정한 기업은 42.4%(크게 하향(10.2%), 소폭 하향(32.2%))를 차지하였으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기업은 35.6%(소폭 상향(23.7%), 크게 상향(11.9%))로 매출실적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기업이 많았다. 매출액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22.0%로 나타났다.
- 올해 영업이익 목표이와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피를 비교하는 질문에는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 목표치를 '낮게'설정한 기업은 45.8%(소폭 하향(35.6%), 크게 하향(10.2%))를 차지하였으며, 목표치를 '높게' 설정한 기업은 33.9%(소폭 상향(23.7%), 크게 상향(10.2%))로 영업이익에 대해서도 목표치를 낮게 설정한 기업이 많았으며, 영업이익 목표치를 '지난해 수준'으로 설정한 기업은 18.6%로 조사되었다.

<올해 경영목표 달성 전망>



아. 상반기 리스크 요인

○ 2023년 상반기 사업실적에 큰 영향을 미칠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3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물가・금리인상'(21.6%), '고물가로 인한 소비둔화'(15.2%), '주요수출국 경기침체(14.4%), '원부자재 수급불안'(13.6%), '지정학적 리스크(미중갈등, 전쟁 등)'(4.0%), '기업부담법안 입법'(0.8%)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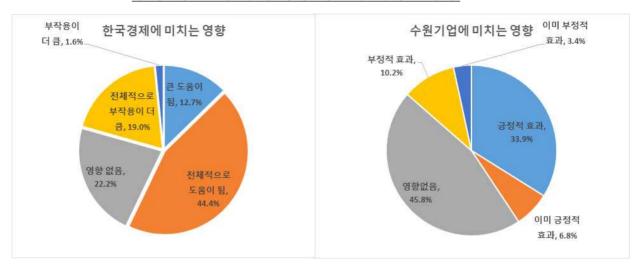
자. 중국 리오프닝의 한국경제 영향

○ 중국이 작년 12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고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에 나선이후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4.4%가 '부작용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됨'이라고 응답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다음으로는 '영향없음'(22.2%), '도움되지만 전체적으로 부작용이 더 큼'(19.0%), '큰 도움이 됨'(12.7%), '부작용이 매우클 것'(1.6%) 순이었다.

차. 중국 리오프닝의 수원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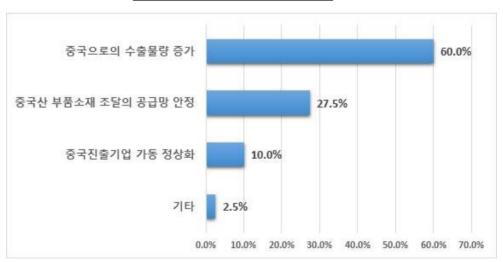
○ 중국의 리오프닝이 귀사의 매출, 수익 등 경영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45.8%가 '영향 없음'이라고 응답해 중국의 리오프닝의 낙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으로는 '긍정적 효과 있을 것'(33.9%), '부정적 효과 있을 것'(10.2%), '이미 긍정적 효과 발생'(6.8%), '이미 부정적 효과 발생'(3.4%) 순이었다.

<중국 리오프닝이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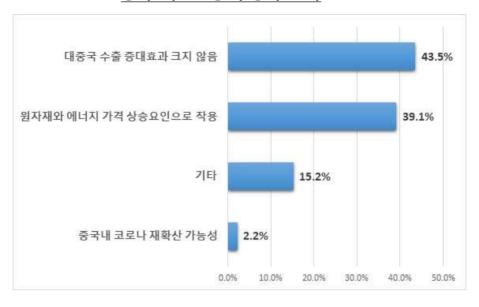
○ 중국 리오프닝이 경영실적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기업들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으로 '중국으로의 수출물량 증가'(60.0%)와 '중국산 부품소재 조달의 공급망 안정'(2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중국진출기업 가동 정상화'(10.0%), '기타'(2.5%) 등 순이었다.

<중국 리오프닝 긍정적 효과>



○ 반면 경영실적에 영향이 없거나 부정적 효과를 예상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중국 수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43.5%)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39.1%), '기타'(15.2%), '중국내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2.2%)을 꼽았다.

<중국 리오프닝 부정적 효과>



카.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사업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대중국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58.6%가 대중국 사업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라고 답했고, '계속 늘려갈 계획'(25.9%), '점차 줄여갈 계획'(15.5%) 순이었다.

타. 리오프닝을 우리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

○ 중국의 리오프닝을 우리기업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35.4%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한중관계 개선'이라고 답했다. 다음으로는 '미·중갈등과 같은 대중국사업 불확실성 해소'(26.2%), '중국내 무역장벽·기술규제 완화'(18.5%), '중국진출우리기업에 대한 애로 해소'(9.2%), '기타'(7.7%),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3.1%) 순이었다.